

1956. 4. 22. 창립
(교회창립주일 4월 넷째주)
2026.07.26.(제3764)

아현중앙교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29길 11(북아현동) (03773)
·Tel. 363-1452 ·Fax. 393-8148
·목사관. 717-2050, 365-2051

순교자의 영성을 이어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신앙의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여, 나는 깨지기 쉬운 흙으로 만든
보잘 것 없는 한 개의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쉽게 금이 가고 부서지는 연약함뿐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삶을 손에 쥐시고
주님의 보배로운 은혜를 채우기 시작하실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어둠 속에서도
나의 잔은 차고 넘치나이다.

내가 가로막힌 길 한복판에 서서
더 이상 걸을 힘조차 없을 그때,
주님은 내 연약한 그릇의 틈새마다
주님의 크신 능력을 채우시나이다.

- 아미 카마이클 (Amy Carmichael) -



기독교
대한감리회 아현중앙교회
AHyun JoongAng Methodist Church

담임목사 권오진

Senior Pastor O Jin Kwon

www.ajmc.or.kr

주일아침 예배순서

1부 7:00
2부 11:00

성령강림 후 제9주

집례: 권오진 목사
오석만 목사
손민승 목사

오르간전주.....반 주 자
※ 입 레 송... 550장(1,3절)...다 같 이
※ 예배의부름.....집 레 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출 29:43)

※ 경 배 찬 송..... 10장 다 같 이
※ 공동의 회개기도.....다 같 이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내
힘과 방법만 의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어
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 교 독 문... 47번(시편105편)...다 같 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라도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 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 신 앙 고 백....사도신경....다 같 이

※ 영 광 송..... 1장 다 같 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 도.....집 레 자

주기도영창.....635장.....다 같 이

헌 금.....다 같 이

※ 봉 헌 송... 211장(1절)...다 같 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론 산 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 목회·봉헌기도.....담임목사

성도의교제 평화의 인사, 교회소식 다 같 이

성 경 봉 독.....정혜미 집사

구 약 | 사 무 엘 상 22:1-2

신 약 | 고린도후서 4:7-10

찬 양...저 높은 곳을 향하여...찬 양 대

증 언.....권오진 목사

『 막힌 길에서 기막힌 길로 』

결단의 찬송과 기도.....다 같 이

※ 복 의 선 언.....담임목사

※ 후 주.....반 주 자

※ 표에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별 목장모임

다음 주: 첫단추 기도회

젊은이예배

오후 2:00, 중예배당

지난 주 통계

예 배		교 회 학 교	
주 일 1 부 예 배	36	영 아 부	4
주 일 2 부 예 배	282	유 치 부	16
주일실시간방송예배	38	유 초 등 부	22
수 요 성 서 연 구	50	중 · 고 등 부	24
수요일실시간방송예배	15	청 년 부	20
금 요 성 령 집 회	.	예 수 소 망 반	29
금요일실시간방송예배	.	합 계	115
합 계	421		

현 금			
주 일 현 금	1,826,000	감 사 현 금	1,080,000
교회학교현금	208,200	생 일 현 금	110,000
월 정 현 금	1,150,000	선 교 현 금	40,000
십 일 조	6,780,000		
합계 11,194,200원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중예배당

월 - 화	시편 강해 손민승 목사
수 - 목	레위기 강해 권오진 목사
금 - 토	디도서 강해 오석만 목사

수요성서연구

7월 29일(수)10:30, 송호준 전도사

어?성경이 읽히지네!
신약 3과 (계속)

본문: 요한복음 5장 1-47절 외

- 금 주 기 도 : 추화순 권사
- 다음주기도 : 여선교회 특별성회

교회학교 장년부 모임

주일 오전 10시 주일 오전 8:10

주일성서연구	예수소망반
방 학	박지연 전도사
	중예배당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1 부 예 배	주 일 오전 7:00	대 예 배 당
2 부 예 배	주 일 오전 11:00	대 예 배 당
첫 단 추 기 도 회	첫째 주일 오후 2:00	대 예 배 당
새 벽 기 도 회	월-토 오전 5:30	중 예 배 당
수 요 성 서 연 구	수요일 오전 10:30	중 예 배 당
금 요 성 령 집 회	금요일 오후 8:00	중 예 배 당
장 년 부	주 일 오전 10:00	대 회 의 실
영 아 부	주 일 오전 11:00	영 아 부 실
유 치 부	주 일 오전 11:00	유 치 부 실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11:00	유 초 등 부 실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11:00	중 예 배 당
젊 은 이 예 배	주 일 오후 2:00	중 예 배 당
예 수 소 망 반	주 일 오전 8:10	중 예 배 당
목 장 모 임	매월 둘째, 넷째주 주일예배 후	목 장 별

7월 예배봉사인원

구 분	1부	2부
헌금위원	태복수 이찬주	박재훈 김보라 권호진 허상원 전동순 소미숙
안내위원	김유임	
강단헌화	(노정훈 안명숙) 윤해자	
수납위원	김동수 심영관	
통계위원	김기석 안대형 이평식 조규성 김명훈 이성호	

지난 주일 증언

“당신은 나입니다”

구약 레위기 19:18

신약 누가복음 10:25-37

설교 : 권오진 목사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한 율법교사가 등장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느냐고 되물으시자, 그는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은 그의 정답을 칭찬하시며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화가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29절은 그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이 질문은 얼핏 보면 이웃을 잘 사랑하고 싶어서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웃의 경계를 긋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고, 이 선을 넘어선 저들은 외면해도 된다’라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당대 유대 사회에서 이웃은 같은 동포, 혈통의 순수성을 지킨 자뿐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나 세리, 이방인은 경계 바깥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끊임없이 율법교사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나와 사회적인 위치가 맞고 또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까지가 내 이웃 아닙니까? 아무도 인정

하지 않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저의 이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그런 우리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핵심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습니다.

레위기 19:18 - ‘카모카’의 영성

예수님의 비유로 들어가기 전, 우리는 레위기 19장 18절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내가 내 몸을 아끼듯 남도 아끼주라’는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네 자신과 같이’로 번역된 단어가 ‘카모카’입니다. 이 단어는 ‘너라는 존재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네 이웃이 곧 너다”라는 선언입니다. 이웃은 나와 별개의 객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와 한 몸으로 연결된 ‘또 다른 나’라는 뜻입니다. 타인의 얼굴 속에서 나의 얼굴을 발견하는 것, 저 사람이 겪는 고통의 자리에서 나의 아픔을 느끼는 것이 바로 ‘카모카’의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명령 뒤에 중요한 단서를 붙이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이웃을 너 자신처럼 보지 않는다면 나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곁에 있는 이웃의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이 투영된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외면하는 것이요, 나아가 내 존재의 뿌리를 부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종교인들의 회피

이제 이 ‘카모카’의 렌즈를 가지고 예수님이 들

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들어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아 거의 죽은 상태로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그 자리에 첫 번째로 제사장이, 두 번째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이들은 매일 성전에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가르치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31절과 32절은 그들의 행동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들은 강도 만난 자를 분명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피하여 지나갔다”였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반대편으로 길을 크게 돌아서 지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핏자국과 신음 소리가 자신에게 닿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도망치듯 우회한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정결 예법을 지켜야 한다는 종교적 명분이나, 강도가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눈앞에서 죽어가는 한 ‘인간’을 외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의 경계를 긋는 종교의 민낯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이웃을 외면하는 영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형식주의를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 6장 6절에서 이렇게 대언했습니다. “나는 인애(헤세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장과 레위인은 제사는 알았지만 인애는 몰랐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자비 - ‘스플랑크니조마이’

그 암담한 길 위에 세 번째 사람인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저주받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본문 33절입니

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성경은 그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기록합니다.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명사형 ‘스플랑크나’는 인간의 ‘장기, 내장’을 뜻합니다. 단순히 동정심을 느끼는 수준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보는 순간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함께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이 방황하는 무리를 보실 때 쓰였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원수 유대인을 보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레위기 19장 18절의 ‘카모카(당신은 나입니다)’의 영성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쓰러진 자의 흘러내리는 피 속에서 자신의 피를 보았습니다. 별거벗겨진 채 신음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아픔을 느낀 것입니다. “저 사람이 바로 나구나.”

그는 ‘카모카’(당신이 나입니다)를 경험했기에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자신의 짐승에 태운 뒤 주막으로 데려가 밤새워 돌보았습니다. 이튿날에는 두 데나리온을 내어주며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자신의 물질과 시간, 미래까지 내어주는 구체적인 사랑을 행했습니다. 사마리아인에게는 더 이상 경계가 보이지 않았습니 다. 오직 나와 본질이 같은 고통받는 형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여리고 길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비유를 마치시고, 질문을 던졌던 율법교사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십니다. 36절입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의 처음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니까?”라며 나를 기준으로 이웃을 고르려 했습니

다. 그러나 예수님은 질문을 뒤집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네가 선을 갇고 앉아서 이웃을 고르지 말고, 고통받는 자에게 다가가 그의 이웃이 되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이웃이라는 단어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의 이웃이 되어 주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직장, 사회가 바로 우리의 여리고 길이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의 여리고 길에서 어떻게 “당신은 나입니다”라는 ‘카모카’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첫째, ‘회피하기’를 멈추십시오. 우리는 내 일정이 바쁘고 내 가정이 바쁘다는 핑계로 이웃의 고통을 보는 순간 자꾸만 반대편 길로 우회하려 합니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라며 회피합니다. 오늘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고통받는 이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그 상처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웃 사랑의 시작입니다.

둘째,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스플랑크니조마이’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이웃이 아플 때 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게 하옵소서. ‘당신은 나입니다’라는 고백으로 그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분명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 그들에게 이웃으로 다가가십시오.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 나귀와 돈을 지불했습니다. 이웃을 위해 내 지갑이 열리고, 내 시간이 드러지고, 내 감정의 에너지가 소비될 때 그것이 참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으로 다가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카모카’(당신은 나입니다)의 완성, 십자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

라”는 명령 앞에 “내 힘으로는 사마리아인처럼 살 수 없습니다”라고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경계를 넘어선 타인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거꾸로 읽어야 합니다.

사실, 이 여리고 길 위에서 강도 만나 죽어가던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는 강도를 만나 영혼이 완전히 짓밟힌 채,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 수 없었던 절망의 존재들이었습니다. 종교도, 세상의 법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 채 멀쩡히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비천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처참한 물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온몸의 창자가 찢어지는 ‘스플랑크니조마이’의 고통을 겪으시며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의 죄와 형벌과 죽음이 곧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카모카’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이라는 가장 고귀한 비용을 십자가에서 전부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과분한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해 “당신은 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향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심장 속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영적 여리고 길과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실 때 내 삶의 경계를 지우십시오. 그리고 내 곁에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 십자가의 심장으로 외치십시오. “당신은 나입니다. 당신의 아픔은 나의 아픔입니다. 내가 당신의 이웃이 되어 주겠습니다.” 이 거룩한 실천을 통해 상처 입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헌금

십 일 조 헌금 (손만승 방세미) (오석만 김선아) (송호준 황영진) (김명훈 김수미) (안홍순 양경화) (이평식 김영숙) (황한규 유경희) (김경행 전차월) (김동수 전순남) (김문기 정건화) (김병일 박경아) (김상길 정윤희) 오금복 윤정환 이윤선 이지혜 이한나 전동순 (전상주 최옥자) (정현호 송미숙) (최난주 한애선) 최소연 (최영섭 서인숙)

월 정 헌금 강정희A (권호진 정장미) (김덕환 최현숙) 김도현 (김진태 이미옥) (박세광 구향모) 윤영화 (이상환 최선규) (이서구 김정희) (최영섭 서인숙) 홍연재

감사헌금

(권오진 조고은) : '이웃사랑나눔프로젝트'를 잘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사랑, 나라사랑, 이웃사랑을 잘 실천해가는 교회되게 하소서.

남기정 : 안식년 마치고 감사드립니다.

김기석 :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박범택 윤옥희) :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송숙희 :故人한수장로님의 13주기 추도식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강정희 : 무더운 더위에도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손들 믿음의 삶과 영육의 건강과 일터 위에 함께 해주세요. 유치부성경학교 은혜 내려주세요. 이 백성 지켜주세요.

고광섭 :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감사드립니다.

고원옥 : 담임목사님 심방에 큰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호진 정장미 온유 소유) :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진 장미 온유 소유의 미래를 책임져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갈경은 : 사랑합니다.

(김덕환 최현숙) : 범사에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문기 정건화) : (순간순간 동행하시고 날마다 새 은혜로 감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생일 맞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예지 : 매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의결 여혜순) :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종근 : 생일을 감사합니다.

김진숙 :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태환 임선희) : 손녀의 첫 돌을 기쁨으로 지낼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문미영 심유진) : 선한 날씨를 허락하시고 유진이네 이사를 잘 마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박영식 정명자) :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박정숙 : 하나님 남편 기일을 맞아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혜리 :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서율 :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영호 : 늘 찬양하는 삶 되길 원합니다.

전동순 :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차정옥 : 에벤에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영섭 서인숙) : 심방 감사합니다.

무명 :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비하신 곳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겸손히 섬김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생 일 헌금 김문기 김종근 이윤선

선교 헌금 오혜리 윤정환

특별 헌금 강단현화 윤해자

성도의 교제

■ 교회소식

- 목장 모임 : 오늘 예배 후, 목장별로 있습니다.
- 영아부 여름성경학교 : '성막, 하나님을 만나요'라는 주제로 오늘과 8월 1일(토)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 '성막, 하나님을 만나요'라는 주제로 오늘까지 있습니다.
- 중고등부 여름수련회 (국내선교) : '내 증인 되리라'는 주제로 7월 31일(금)부터 8월 2일(주일)까지 순천 한울림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 여름철 신앙교육활동을 위한 '손잇기 중보기도' : 로비층에 전시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26년도 2학기 장학생 후보 신청접수 안내 :
1) 대상 : 아현중앙교회 교인 및 자녀(고등학생, 대학생), 신청 가능 대상자(교회 홈페이지-소식/교제-아현중앙소식)
2) 제출기간 : 8월 9일(주일) 오후 3시까지 도착 분
3) 신청 및 문의 : 교회 홈페이지, 오석만 목사
- 8월 예배담당 :

주	주일		수	수요성서
	기도	성경봉독		
2	김영미	집례자		
9	집례자	강승균	5	특별성회
16	조상현	집례자	12	이미옥
23	김수미	집례자	19	김규례
30	집례자	안현수	26	장균복

- 8월 예배위원 : 성찬준비 김영미 박범택
1부 안내위원 : 이해순 헌금위원 : 김선옥 구용연
2부 헌금위원 : 김진태 이미옥 이재화 홍석은 오정규 조은지
- 여선교회 특별성회 : 8월 5일(수) 오전 9시 50분 - 오후 5시 30분, '가정에 하나님을 새기라'라는 주제로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강사: 백은실 사모) 1층 로비에서 등록을 받습니다.(회비: 1만원)
- 전교인수양회 참가신청 : 9월 5일(토) ~ 6일(주일) 가평우리 마을에서 "위드(WITH)2026"라는 주제로 있으며, 8월 9일(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회비 : 2만원)

■ 모임안내

- 한나목장 모임 : 오늘 오후 12시 40분,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 여선교회 회장단회의 : 29일(수) 오후 12시 30분,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 교우동정

- 감사 : 한나회 야유회를 후원해 주신 김현숙B 권사께 감사드립니다.
- 감사 :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를 후원해 주신 총여선교회, 7여선교회, 장로회, 김미광 서태희 장로, 송대현 오수운 집사께 감사드립니다.
- 교직원 휴가 : 김동수 권사(7/31 ~ 8/6)

♣ 여름철 신앙교육활동

영 아 부	7.12(주일)/7.19(주일)/7.26(주일)/ 8.1(토)
유초등부	7.25(토) - 7.26(주일)
중고등부	7.31(금) - 8.2(주일) (국내선교)
청 년 부	8.21(금) - 8.23(주일) (국내선교)
여선교회	8.5(수)

■ 온라인 헌금

019601-04-344912 (국민은행, 아현중앙교회)

헌금 내용(헌금자명+헌금종류)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새가족

-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은 안내석에 등록해주시길 바랍니다.

◆ 8월 중 행사

- 목장모임 : 9일, 23일(주일)
- 나눔콘서트 : 30일(주일) 오후 1시, 대예배당

■ 금요성령집회(7월 31일)

찬	양	교역자 찬양단
설	교	권 오 진 목사

■ 주일아침예배(8월 2일)

대 표 기 도	김 영 미 장로
성 경 봉 독	안 현 수 집사

■ 주방봉사

- 이번 주 : 2초원
- 다음 주 : 4초원

■ 교회를 섬기는 분들

- | | | | |
|-------------|-----------------|-----------|-------------|
| • 원 로 목 사 | 윤병상 백구영 손운산 이선균 | • 소 속 목 사 | 김재성 장재호 김희진 |
| • 부 담 임 목 사 | 손민승 오석만 김선아(부분) | | 남기정 정영준 |
| • 수 련 목 회 자 | 송호준 | • 성 가 지 휘 | 김정희 김병일 |
| • 전 도 사 | 박지연 | • 반 주 | 최소연 이진경 박경아 |
| • 교 육 전 도 사 | 서지수 | | 황영진 김수빈 |